

# 한국 리얼리즘론의 역사

曹 南 鉉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 론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에 비하면 리얼리즘은 비교적 오랫동안 주조의 하나가 되어 온 편이다. 그만큼 우리 현대문학은 특수한 전개과정을 거쳐 온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가 하면 리얼리즘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뜻을 지닌 개념이라는 암시가 되기도 한다. 19세기 유럽에서 리얼리즘이 발생하여 20세기를 경과하고 東西諸國에 수용되어 많은 갈래와 변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실제로 리얼리즘은 그 어느 사조보다 복잡한 개념임에 틀림없다. 리얼리즘의 小辭典이요 小史라 할 수 있는 D. 그랜트의 『Realism』에서는 비판적 리얼리즘, 역동적 리얼리즘 등 근 30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판적/낙관적 리얼리즘, 주관적/객관적 리얼리즘, 양심적/의식적 리얼리즘 등과 같은 여러 대립항을 보여 주고 있다.<sup>1)</sup> 스테판 코올이 편한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여균동 편역, 1982, 한빛출판사)에서는 I. 와트의 ‘형식적 리얼리즘’, 오토 루드비히의 ‘시적 리얼리즘’ 외에 ‘시민적 리얼리즘’, ‘심리적 리얼리즘’, ‘총체적 리얼리즘’(Totalrealismus) 등의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렇듯 리얼리즘의 종류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리얼리즘 자체의 生來的인 模糊性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에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살펴 보는 것은 크게는 한국현대문학사 작계는 한국현대소설사에 대한 이해의 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리얼리즘의 유형이나 종류에 대한 논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형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때의 리얼리즘론은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현상파악’의 귀납적 결과이기 보다는 동시대 작가들을 향한 立法批評이나 啓導批評의 형태로 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그때그때의 작품들을 분석, 평가한 것을 종합하고 정리한 리얼리즘론이 아니며 동시대의 작가들에게 작품을 이리이러한 식으로 쓰라고 강요하거나 주문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얼리즘 또는 사실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20년대 말에 가서였다. 실제로는

---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Damian Grant, "Realism"(Methuen Co Ltd, 1974) pp. 1-15.

사실주의보다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던 때다. 1920년대의 논자들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폈다. 吳相淳은 「종교와 예술」에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동의어로 보았고<sup>2)</sup> 安自山은 「세계문학관」에서 자연주의를 사실주의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sup>3)</sup> 李光洙는 「조선문단의 現狀과 將來」에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면서 자연주의가 “구태여 人生의 暗黒의 일면, 獸性的 일면만을 자연으로 보는 것은 偏見”<sup>4)</sup>이라고 하여 사실주의를 긍정적으로, 자연주의를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에 서양의 문예사조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글로는 金億의 「近代文藝」(『개벽』, 1921. 6-1922. 3), 玄哲의 「문학상으로 보는 思想」(『개벽』, 1921. 10), 金基鎮의 「文藝思想과 社會思想」(『조선문단』, 1927. 1) 등이 있다. 이들 세 사람은 사실주의 보다는 자연주의에 더 큰 무게를 준 데서 공통점을 갖는다. 「自然主義에서 新理想主義에 기우러지는 朝鮮文壇의 最近 傾向」(『개벽』, 1924. 2. pp. 94-96)에서 자연주의를 “인생의 암면묘사, 주인공의 타락의 서술”이라고 하면서 자연주의가 극복되면 새로운 이상주의가 열릴 것이라고 한 朴英熙도 이들과 비슷한 시각을 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자연주의를 사실주의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든 아니든 간에 사실주의를 자연주의에 연결시켜 논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실주의를 논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본격적인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보다 적극적인 사조임을 깨닫거나 사실주의를 자연주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1930년대 前期의 리얼리즘론

리얼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20년대 말에 가서 김팔봉에 의해 시작되었다. 金八峯은 1929년도에 「辨證的 寫實主義」, 「寫實主義 問題」 등의 글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십년간 조선문예 변천과정」(『조선일보』, 1929. 1. 1-2. 2)이란 글을 쓴 바 있다. 이 글에서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염상섭의 「標本室의 靑게고리」, 현진건의 「타락자」 등의 작품을 논하는 가운데 이들이 ‘개인주의’, ‘현실주의’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개인주의와 현실주의는 각각 자연주의, 사실주의와 합쳐지면서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팔봉은 개인주의를 인도주의와, 현실주의를 이상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김동인과 현진건을 사실주의 작가군에 포함시켰다.

「辨證的 寫實主義」(『동아일보』, 1929. 2. 25-3. 7)에서 김팔봉은 프롤레타리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興起하는 階級’의 태도는 몰락계급과는 달리 객관적, 현

2) 「廢墟」, 1921. 1. p. 15.

3) 「我聲」, 1921. 5. pp. 38-45.

4) 「東亞日報」, 1925. 1.1.

실적, 구체적,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프로작가는 리얼리스트이어야 하되 그것도 객관적 리얼리스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글에서 이른바 (소)브르조아 작가들의 소설세계를 살펴 본 바 있는 김팔봉은 당시 조선 땅에 브르조아 리얼리스트는 있는데 반해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스트는 아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당시에 프로작가라고 불리웠던 李箕永이나 崔曙海道 '로맨틱한 요소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기영이나 최서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을 향한 김팔봉의 요구는 (1) 현실의 객관적 파악, (2) 사건의 구체적 인과 제시, (3) 역동성, 전체성, 관계성의 논리에서의 통찰, (4) 객관적, 현실적, 구체적 묘사방법, (5) 프로그래밍의 前衛의 위치 유지 등 여덟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sup>5)</sup> 이 가운데서 현실파악이나 현실묘사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1), (4)의 요구는 특정 시각이나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 (5)를 강화시킨 黨派性的 개념과 모순이 될 수 있다. 또 (1)과 (4)는 19세기 류의 소박한 리얼리즘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2)는 자연주의의 특징을 가리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팔봉은 당시로서는 리얼리즘 중에서도 앞서 가는 리얼리즘을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팔봉의 변증적 사실주의는 소박한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의 기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廉想涉의 반박을 샀고 다시 이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김팔봉은 「寫實主義 問題」(『조선일보』, 1929. 6. 13-25)를 발표하였다. 김팔봉은 여덟 가지 요구사항을 염상섭이 조목조목 비판한 것을 되받아 쳤다. 그는 이 기회를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씨는 나의 「변증적 사실주의」의 일문을 駁함으로써 철두철미 자기가 관념론자요, 자연주의작가요, 그리고 현 계급 사회에 있어서 소시민계급에 소속되어 있음을 더욱 명백히 보였을 뿐”<sup>6)</sup>이라고 한 것처럼 「변증적 사실주의」, 「사실주의 문제」의 두 글은 같이 광의의 리얼리스트에 드는 염상섭과 김팔봉을 분명하게 갈라 놓는 계기가 되었다. 염상섭은 자연주의자의 입장에서, 김팔봉은 마르크시즘의 관점에서 리얼리즘으로 접근해 갔던 것이다. 두 사람의 견해차는 리얼리즘론에 있어 평론가가 작가보다는 강경한 태도를 지니기 쉬운 것임을 잘 입증해 주기도 한다.

김팔봉의 변증법적 사실주의론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응을 보이면서 리얼리즘론을 전개한 글로 安漢의 「푸로藝術의 形式問題」(『朝鮮之光』, 1930. 3), 「上同(2)」(1930. 6)와 洪曉民의 「辨證的 寫實主義와 辨證的 表象主義의 差異」(『新民』, 1930. 7) 등이 있다. 安漢의 글은 '푸로레타리아 리아리즘의 길노'를 부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문학론의 내용·형식론을 설명하는데로 기울고 있다. 안막은 김팔봉의 「변증법적 사실주

5) 『東亞日報』, 1929. 3. 7.

6) 『朝鮮日報』, 1929. 6. 25.

의」가 문학작품의 내용의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제 8절 ‘프로레타리아 리아리즘의 확립’에서 리얼리즘은 “예술가가 社會現象에 대하여 何等 主觀的 先驗的 觀念을 갖지 않고 현실을 현실대로 描出할여는 唯物的 客觀的 現實主義的 態度인 것”<sup>7)</sup>이라고 하였고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사회현상을 유물적으로 發展性에 잇서 全體性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결국의 ××라는 階級的 立場에서 形象을 빌리어 描出하는 예술적 태도인 것”<sup>8)</sup>이라고 하였다. 리얼리즘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주관적 선형적 관념을 갖지 않고’라고 한 것과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을 정의하는 곳에서 ‘계급적 입장’이라고 한 것은 어울리기가 어렵다. 결론 부분에서 김팔봉의 변증법적 사실주의를 “원칙적인 맑스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풀고 있는 洪曉民은 김팔봉의 변증법적 사실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동문학도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柳白鷺의 「소년문학과 리아리즘」(『中外日報』, 1930. 9. 18-26)과 “프로레타리아 레아리즘은 이데올로기의 強化와 문학의 大衆化를 본질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 「프로문학의 大衆化」(『中外日報』, 1930. 9. 4-9, 10)가 이 무렵에 발표되었으나 주목 받지는 못 하였다. 한마디로, 류백로는 김팔봉의 오류에 불과했다.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과 변증법적 리얼리즘을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 것은 韓雪野였다. 특히 변증법적 리얼리즘은 김팔봉에 이어 한설야가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함으로써 1930년대의 문단에서 하나의 문학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는 1931년에 「寫實主義 批判」(『동아일보』, 1931. 5. 17-7, 25)이라는 아주 긴 평론을 발표하였다. 한설야는 리얼리즘의 역사를 소개하기보다는 새로운 리얼리즘을 주창하기 위해 이 장문의 글을 쓴 것이다. 그는 고대회합에서 러시아 혁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리얼리즘의 형성과정을 폴 켈트, 플로베르, 고골리, 테느 등의 이론과 작품을 근거로 하여 개관하였다. 그는 역사와 현실의 몰이해, 협조와 타협 우선론, 역사적 변증적 인식의 결여 등이 종래의 리얼리즘의 한계라고 하였다.<sup>9)</sup> 바로 이러한 종래의 리얼리즘의 한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의 특징들이 저절로 파악된다. 韓雪野는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은 변증적,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 인식에 의거하여 현실을 해석 규명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김팔봉이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을 변증법적 사실주의로 바꾸어 부른 것과는 달리 자신은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이란 말을 고수한다고 하였다. 그는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대상을 媒介性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을 生成과 運動으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 대상을 全體

7) 『朝鮮之光』, 1930. 6. p. 50.

8) 위의 책, p. 49.

9) 『東亞日報』, 1931. 6. 23.

性이나 具體的 特殊性으로 파악해야 한다. 넷째, 대상을 모순의 지양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sup>10)</sup> 이러한 강령은 앞서 논한 김팔봉의 평론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이다. 한설야에게서는 ‘객관적’이니 하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한설야는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의 강령을 작품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文藝公論』(1929. 6)에 발표된 바 있는 柳池生의 「답싸리」를 분석 평가하는 자리에서 ‘追隨의 나열적 표현, 세균학적 말초적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부르 리얼리즘에 머물고 말았다’고 하였다. 사회관계, 노자관계 등에 대한 변증적 역사적 인식의 결여로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에는 턱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실주의 비판」보다 몇 달 후에 발표된 「변증법적 사실주의의 길로」(『조선중앙일보』, 1932. 1. 18-19)는 제목과는 달리 여전히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削除措置된 흔적이 유난히 많은 이 글은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한설야의 신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辨證的 尺度로서 현실의 內在的 必然的 歷史的 線路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sup>11)</sup>이라고 한 다음 ‘주제의 강화’와 ‘대중화의 기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기교편중주의는 경계하고 있다. 이론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변증법적 리얼리즘의 확립은 현실이나 문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의 수립, 세계관의 확립, 문학을 보는 입체적·전체적 관점의 형성 등의 의미<sup>12)</sup>를 갖는다.

1933년에 들어 서서 白鐵은 비록 본격적인 리얼리즘론은 아니지만 「문예시평」을 통해서 자기나름의 분명한 리얼리즘관을 펴 보이게 된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3월의 「문예시평」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적당하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리어 전에 사용하던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이 적당하다”<sup>13)</sup>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심리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조선일보』 1933년 9월의 「문예시평」에서는 새로운 리얼리즘으로 심리주의적 리얼리즘 또는 내성적 리얼리즘을 들었다.<sup>14)</sup> 심리주의적 리얼리즘은 프르스트, 헉슬리, 버지니아 울프 등의 新心理主義 문학을 다른 말로 부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백철은 와시리코프의 이론을 빌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비판하였고 인간은 “계급적 인간과 개인적 인간의 통일 가운데 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리얼리즘의 방법론은 받아 들이되 ‘개인’을 회복해 보자는 것이다. 심리적 사실주의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사실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많은 전향문인들이나 동반자적 문인들 사이에서 애용되었던 용어다. 변증법적 사실주의나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

10) 『東亞日報』, 1931. 7. 4-7. 18.

11) 『朝鮮中央日報』, 1932. 1. 18.

12) 張師善, 『한국리얼리즘문학론』(새문사, 1988) pp. 138-139.

13) 『조선중앙일보』, 1933. 3. 8.

14) 『조선일보』, 1933. 9. 16.

에 비하면 심리적 사실주의는 일정한 요구들로부터는 해방된, 그러면서 온건해진 것이다. 심리적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를 주관성의 논리에서 구출하여 객관성의 논리로 보내고자 하였다. 金起林은 「예술에 있어서의 「리알리티」 「모랄」 문제」에서 리알리티를 ‘현실’로 옮길까 ‘진실’로 옮길까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모든 예술가들에게 ‘리알리티의 一樣化 標準化 一般化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sup>15)</sup>고 하였다. 김기림은, 리알리티 또는 리얼리즘은 지시 영역이 넓은 만큼, 이를 한곳로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있다. 이에 반해, 한설야는 계속해서 빠르게 리알리즘을 공격하였다. 「빠르 리알리즘의 인식상의 결함」이란 제목의 「문예시평」에서 한설야는 李泰俊의 「달밤」과 安懷南의 「안해의 탄식」을 빠르게 리얼리즘에서 못 벗어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부르조아 리얼리즘 중심의 이제까지의 리얼리즘은 사회나 현실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 다음 ‘철저한 유물변증법의 확립’을 그 대안으로 내세웠다.<sup>16)</sup>

1933년도에 재빨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앞장서 제기했던 權煥은 「寫實主義的 創作 메토데의 서론」에서 ‘舊리얼리즘’과 ‘새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썼다. 권환에 의하면, 전자는 객관적 사실주의나 부르조아 리얼리즘을 가리키며 후자는 소시알리스트 리얼리즘을 가리킨다. 객관적 리얼리즘은 본질을 보지 못하며 대상을 單子論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부르조아 리얼리즘은 소극적이거나 관조적인데다가 계급적 한계를 내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7)</sup> 권환과 마찬가지로 소시알리스트 리얼리즘을 이상적인 리얼리즘으로 보고 있는 安漢은 이제 리얼리즘은 발자크나 톨스토이가 대변하는 ‘소극적 관조’에서 고리끼가 이끄는 ‘적극적 변혁’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하였다.<sup>18)</sup> 「再討議에 오른 創作方法 問題」에서 金友哲은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이란 말은 창작방법을 가리키는 말로는 모호하다고 하면서 이 대신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말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sup>19)</sup> 安漢이나 金友哲의 주장에 대해 슬며시 제동을 건 것은 金南天이었다. 두 사람이 제기한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에 대해 김남천은 그것이 곧바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남천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소련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실천상 과제와 관련하여 제창된 것이며 소련 문학운동의 조직문제와 결부되어 상정된 것으로, “소련과 조선과는 그 현실적 근거가 적지않게 다르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김남천은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에의 복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은 이미

15) 『조선일보』, 1933년 10월 22일.

16) 『조선일보』, 1933년 11월 15일.

17) 『중앙』, 1933. 12. pp. 124-126.

18) 安漢, 「創作方法 問題의 再討議를 위하여」, (『동아일보』, 1933. 12. 6).

19) 『조선일보』, 1933. 12. 16.

20) 金南天, 「창작방법에 있어서 전환의 문제」(『형상』, 1934. 3)

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남천이 푸로레타리아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자를 다 부정한 반면, 안송광은 문학을 ‘포스터 문학’—‘시사문학(중간)’—‘브르조아 형식주의’으로 갈라 놓고는 時事文學을 옹호하고 브르조아 형식주의 즉 나이브 리얼리즘을 타도하자고 하였다.<sup>21)</sup> 시사문학은 현실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투쟁의식과 고도의 형상화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즉, 내용과 형식이 잘 반죽된 문학을 말한다. 앞서 논한 안막이나 김우철 같았으면 포스터 문학을 지지하고 브르조아 형식주의를 적극 부정했을 것이다. 이 무렵 朴英熙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심리적 사실주의’를 제창하였다. 심리적 사실주의는 이미 백철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創作方法과 作家의 視野」(『중앙』, 1934. 4)에서 고리끼조차도 실제 작품에서는 톨스토이, 프로베르 류의 리얼리즘을 습득하였던 만큼, 심리적 사실주의를 써야 소시알리스틱 리얼리즘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영희는 엥겔스의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세와 사건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사실주의적 수법을 써야 하며 이러한 사실주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심리적 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주장은 창작방법을 評家에게서 배우지 말고 고전작가에게서 배우라고 한 충고로 받아 들여도 좋을 것이다. 심리적 사실주의는 전향선언을 한 이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인 만큼, 그 위상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다. 박영희가 심리적 사실주의로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대안을 제시한 반면 林和는 ‘낭만적 정신’을 들고 나왔다. 「浪漫的 精神의 現實的 構造」에서 그는 ‘낭만적 정신’은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인류사회를 광대한 미래로 인도하는 정신’이라고 하며, 낭만적 정신이 결여될 경우, “비본질적 쇄사에만 종사하는 표면적인 공허한 리얼리즘이나 트리비아 리얼리즘에 그치고 만다.”<sup>23)</sup>고 설명한다. 흔히 로맨티시즘을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통념은 임화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으나 이러한 낭만적 정신의 제기조차도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낭만적 정신을 토대로 한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여한 바 없으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논한 것처럼, 시사문학의 옹호를 외쳤던 안함광은 「창작방법 문제의 토의에 기하여」(『문학창조』, 1934. 6)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프로 리얼리즘 모두를 부정하였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조선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사회적 적응성은 전연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되고 있다. 안함광은 대안으로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을 제기하고 있다. 안함광은 이미 ‘時事文學’이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창작방법은 현실인식과 예술적 형상의 표현의 방법과의 변증법적 통일물’이라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안함광은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으로 나아 가자고 고창하

21) 안송광, 「時事文學의 擁護와 打合 나이브 리얼리즘」(『形象』, 1934. 3) p. 57.

22) 『중앙』, 1934. 4. pp. 131-133.

23) 『朝鮮日報』, 1934. 4. 25.

고는 있지만 정작 그 뜻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카프측 문인들의 눈으로 보면 1931년도의 김팔봉이나 한설야의 수준으로 한걸음 후퇴하자고 증용한 것이 된다.

李東珪는 「창작방법의 새 슬로건에 대하여」(『조선중앙일보』 1934. 6. 10-13)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어떤 나라, 어떤 지방,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다 훌륭히 통용될 수 있는 슬로건”<sup>24)</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소련과 조선의 현실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한계성을 지적한 김남천, 안함광의 태도와 반대가 된다. 그 당시 카프측 문인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절대시했던 것만은 아니다. 다시, 안함광은 「창작방법문제 新理論의 吟味」(『조선중앙일보』, 1934. 6. 17-6. 30)에서 바로 직전의 글 「창작방법 문제의 토의에 기하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기계적 적용은 곤란하니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함광은 김팔봉과 한설야의 뒤에 서서 변증법적 리얼리즘의 대열을 만들었다.

오로지 프로××이 모든 기관의 실권을 쥐 나라와는 판이한 여기의 객관적 현실의 정시와, 예술은 그 특수성에 있어서 리얼리즘을 기초조건으로 한다는 원칙적 견해를 갖는 입장에서 재래의 슬로건의 직절치 못한 표현에 감하여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의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슬로건의 대체가 절대로 아니다.<sup>25)</sup>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앞장 서 제기한 사람의 하나였던 權煥은 「現實과 世界觀 및 창작방법과의 관계」(『조선일보』, 1934. 6. 24-6. 29)에서 안함광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한마디로 ‘새로운’ 사실주의는 도식적인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에서 벗어 나야 하고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無思想主義, 技術主義, 형식주의적 초자연주의에의 복귀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안함광은 ‘새로운’ 사실주의에다가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지 못하였다.

尹崑崗은 「쏘시알리스트 리얼리즘論」(『신동아』, 1934. 10)에서 1928년 5월에 개최된 제 1회 전조선방 프로작가대회에서 프로문학의 모토로서 ‘심리주의적 리얼리즘’이 선언된 점을 환기시키면서 그 심리적 리얼리즘의 허실을 살펴 보는데 힘을 썼다. 그는 심리주의적 리얼리즘이 자칫하면 ‘계급적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것의 우세의 시각’, ‘주관적인 관념론의 세계로의 함몰’, ‘현실을 완전성에서 그리는 것의 실패’ 등과 같은 한계를 낳기 쉽다고 하였다.<sup>26)</sup> 앞서 논한 박영희나 백철의 주장에서 감지할 수 있었 듯이 ‘심리주의적 사실주의’는 ‘심리주의’로 전치되기 쉽다. 윤관강은 소시알리스트 리얼리즘의 발생과정과

24) 『조선중앙일보』, 1934. 6. 13.

25) 『조선중앙일보』, 1934. 6. 30.

26) 『新東亞』, 1934. 10. PP. 187-188.



역사적 조건의 객관적 구명을 시도하면서 킬포틴 중심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근강은 백철이나 박영희가 심리적 사실주의를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 자체의 보강책을 생각했다.

韓曉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혁명적 낭만주의’의 도움을 받아야 완성된다는 주장을 강조한 대표적인 논객이었다. 한효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1930년대 당시 프로문학론자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다.

로맨티시즘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受動的 觀照的 리얼리즘이 아니고 實踐的 能動的 리얼리즘임을 보증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하여금 현실을 그 운동 발전에서 포착하고 현재에서 그 미래성을 관찰하는 것임을 대변하는 자이다. 혁명적 로맨티시즘은—편협 고갈한 방법이 아니고 예술적 풍부성과 생명에 충실한 방법임을 확증하는 바이다.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일 과제이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없이는 충분할 수가 없으며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항상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의 관련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27)</sup>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완성시켜 준다’는 주장을 해방 직후까지 한효처럼 줄기차게 펼친 사람도 없다. 한효는 이 직후에 발표한 평론 「新創作方法的 再認識을 위하여」(『조선중앙일보』, 1935. 7. 23-27), 「創作方法的 論議」(『동아일보』, 1935. 9. 27-10. 5) 등에서 똑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무렵 李秉珏은 「조선적 현실의 논고」(『조선중앙일보』, 1935. 8. 17-8. 22)에서 과거에 김팔봉과 한설야에 의해 제기되었던 변증법적 리얼리즘은 작가를 교육시키는 차원밖에 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새로운 리얼리즘은 작가적 실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이병각이 새로운 리얼리즘이라고만 하였던 것에도 金斗鎔은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는 「창작방법의 제문제」, 「창작방법의 문제에 대하여 재론함」 등의 글에서 계속 ‘혁명적 리얼리즘’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실의 진실을 정확히 그리라는 방법은 리얼리즘의 일반 원칙으로 전세계에 통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자 하는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이 사회주의적 현실을 표현하니 조선에서도 그러자는 것은 잘 못된 태도라는 것이다. 소련에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적당하다면 조선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게는 오히려 ‘혁명적 리얼리즘’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나 봉건

27) 『조선 중앙일보』, 1935. 6. 12.

28) 『조선중앙일보』, 1935. 8. 22.

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적 리얼리즘은 곧 ‘반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이거나 ‘반봉건주의적 리얼리즘’이 된다는 것이다.<sup>29)</sup> 김두용은 그 당시 리얼리스트임을 자임하는 李北鳴, 朴花城, 嚴興燮, 趙碧岩, 安懷南 등과 같은 작가들의 이론이나 작품경향을 살펴 보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의 맹목적 추수, 리얼리즘의 오용과 남용과 같은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주의적 리얼리즘이란 말도 김두용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sup>30)</sup> 일본의 北巖二郎, 佐分武 등이 주창했던 것을 가져다 쓴 것이다.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은 자본주의 체제가 굳어진 일본에서는 ‘혁명적’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었다.

### 3. 1930년대 後期の 리얼리즘론

카프의 주요맹원이면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金南天은 1936년 벽두에 ‘건전한 사실주의’를 들고 나왔다. 김남천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들먹거리지도 않았지만 브르조아 사실주의로 후퇴한 것도 아니었다. 건전한 사실주의는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관념적, 형이상학적 태도—생물학적 애육, 인도주의적 愛, 병리적 심리, 불안의식—와 대립시켜 놓고 보는 것”<sup>31)</sup>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건전한 사실주의는 소박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창작방법의 新吟味」라는 부제의 「레알리즘 小考」에서 朴勝極은 소시알리스트릭 레알리즘은 가장 발달된 리얼리즘이며 역사적 근거가 뚜렷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고리끼의 말을 금과옥조로 새기면서 소시알리스트릭 리얼리즘은 혁명적 로만티시즘과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소시알리스트릭 리얼리즘은 타국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박승극은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한효와 같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지역 적용가능성을 주장한 점에서는 이동규와 비슷하다. 대체로 신인들은 강경하거나 극단적인 태도를 잘 취하는 법이라는 이치가 박승극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박승극은 리얼리즘은 ‘護身具’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sup>32)</sup>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더 나아가서는 사실주의 전부는 낭만주의와 결합해야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찌기 宋江이나 韓曉에 의해서 펼쳐진 바 있다. 송강은 「浪漫과 寫實」(『동아일보』, 1934. 11. 30-12. 9)에서 발자크와 위고를 예로 들면서 ‘철저한 리얼리스트는 철저한 로만티시스트이며’, ‘진정한 리얼리즘은 진정한 로만티시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무명의 이론가 송강은 로만티시즘과 리얼리즘의 의식적인 통합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의 도정이라고 하면서

29) 金斗鎔, 「창작방법의 문제」(『동아일보』, 1935. 8. 25).

30) 『동아일보』, 1935. 11. 22.

31) 『朝鮮文壇』, 1936. 1. P. 95.

32) 『조선중앙일보』, 1935. 3. 30.

‘위고적 낭만주의’와 ‘졸라적 사실주의’는 ‘발자크적인 사실주의’의 형태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3)</sup> 「문학상의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의 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창작방법의 논의」(『동아일보』, 1935. 9. 27-10. 5)에서 한효는 ‘유물변증법은 세계관이나 철학방법으로, 곧장 창작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한 金斗鎔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물변증법이 제 아무리 마르크스의 철학적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장 창작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소시알리스트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한효는 소련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자의 말을 따라 두 사조의 강력한 결합을 주장했던 반면, 김두용은 결합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로맨티시즘도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센치멘탈리즘으로 또는 아이디얼리즘으로 풀이된다. 로맨티시즘을 한효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이나 공상으로 파악했던데 반해 김두용은 평화로운 전원의 분위기를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두 사람의 대립을 보편주의자와 개체주의자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 1936년도에는 白鐵의 「리얼리즘의 再考」(『四海公論』, 1936. 1), 安畝光의 「쏘시아리스틱 리얼리즘 제창후의 조선문단의 추향」(『조선일보』, 1936. 1. 3-10), 韓黑鷗의 「現實主義 文學論」(『조선 중앙일보』, 1936. 3. 25-28), 韓曉의 「진정한 리얼리즘에의 길」(『조선문학』, 1936. 8), 「창작방법론의 신방면」(『동아일보』, 1936. 9. 19--25), 崔載瑞의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조선일보』, 1936. 10. 31-11. 7) 등을 주목할 만하다. 1937년도에는 尹鼓鍾의 「사실주의의 현대적 의의」(『조선문학』, 1937. 2), 金龍濟의 「리얼리즘을 발전시키자」(『동아일보』, 1937. 7. 30), 「리얼리즘문학 발전론」(『동아일보』, 1937. 9. 14-18), 「리얼리즘의 옹호」(『동아일보』, 1937. 10. 14-16), 林和의 「寫實主義의 再認識」(『동아일보』, 1937. 10. 8-14), 安畝光의 「현대문학 정신의 모색」(『조선일보』, 1937. 11. 11-14), 蔡萬植의 「僞裝의 科學評論—其實 리얼리즘에 대한 侮瀆」(『조선일보』, 1937. 12. 1-7) 등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金龍濟는 리얼리즘문학은 곧 ‘인민문학’이요 ‘예술적 고급문학’이라고 할만큼<sup>35)</sup> 리얼리즘예찬론자가 되었는데 이때의 ‘인민문학’은 ‘리얼리즘문학이 대중화 되어 민중이 자기 문학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한마디로 고급한 문학’을 말한다. 이미 ‘대중화’라는 말과 ‘고급화’라는 말의 공존이 눈에 거슬리고 있거니와, 대체로 김용제는 리얼리즘을 잘 못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기영의 작품을 공격한 채만식을 향해 ‘소시민작가의 발악’이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sup>36)</sup> 리얼리즘이나 리얼리스트를 공격하는 것은 반리얼리스트나

33) 『동아일보』, 1934. 12. 9.

34) 韓曉, 「창작방법의 논의」(『동아일보』, 1935. 10. 4)

35) 『동아일보』, 1937. 9. 17.

36) 『동아일보』, 1937. 10. 15.

마찬가지라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만식은 ‘입으로는 사실주의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자연주의를 旺護하고, 유물론적 방법을 엮붙하면서 기실은 관념론의 함정에 빠져 드는’ 김용제와 같은 이야말로 리얼리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sup>37)</sup> 이는 올바른 판단이었다.

林和의 「寫實主義의 再認識」은 낭만주의 혹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제기하여 ‘고차적 레알리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一契機’를 마련하게 된 역사적 필연성을 들려 주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레블루쇼날 로맨티시즘은 단순한 주관의 토로가 아니고 주체와 객관적 현실이 실천적으로 교섭하는 데서 일어 나는 고매한 파도스’를 뜻한다. 그는 푸로레타리아 리얼리즘, 변증법적 사실주의, 쏘시알리즘적 레알리즘의 연결과정에다가 ‘발전개념’을 부여하였다. 쏘시알리즘적 레알리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朝鮮傾向文學의 寫實的 藝術로서의 자기완성의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黨派的 文學으로서의 成長過程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각단계”<sup>38)</sup>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임화는 당시 몇 사람의 이론과 작품들을 검토한 뒤에 리얼리즘의 오용과 남용현상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최재서와 김용제가 리얼리즘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쏘시알리즘 레알리즘 이후의 리얼리즘을 두고 ‘匍匐한 레알리즘’, ‘파행적 레알리즘’, ‘트리비아리즘과 혼동하기 쉬운 레알리즘’, ‘마음의 레알리즘’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향문학의 퇴화나 침체로 부를 수 있다. 그는 韓雪野의 「太陽」, 「林檎」, 「후미끼리」 등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당시의 레알리즘이 ‘새로운 觀照主義’나 ‘낡은 公式主義’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암시하였다.<sup>39)</sup> 임화는 1937년 당시의 많은 소설작품들을 검토하면서 리얼리즘의 퇴화를 지적해 내기는 하였으나 그도 고리끼 류의 공식주의에서 벗어 나지 못했었다. 그는 슬며시 쏘시알리즘 리얼리즘을 정점에 놓고 있었다.

1936. 7년에 활발했던 본격적인 리얼리즘론은 1938년에 들어 서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엄홍섭의 「심리적 리아리티의 결핍」(『조선일보』, 1938. 6. 29), 한효의 「현실인식의 태도와 모랄」(『비판』, 1938. 9) 등이 발표된 정도다. 그나마 1939년도에는 본격적인 리얼리즘론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1940년에는 尹圭涉의 「現實主義的 傾向」(『文章』, 1940. 6)이라는 주목할 만한 글이 발표되었다. 그는 당시의 평론가들과 작가들이 대체로 리얼리즘을 포기한 듯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는 白鐵의 “내적 리얼리즘”은 “喪家에 祝辭 드리는 格”이라고 하였으며 世態니 風俗이니 市井遍歷이니 하고 떠들어 대

36) 『동아일보』, 1937. 10. 15.

37) 『조선일보』, 1937. 12. 1.

38) 『동아일보』, 1937. 10. 8.

39) 『동아일보』, 1937. 10. 10.

면서 私小說이나 身邊小說의 세계에서 벗어나 보려는 분위기마저도 이제는 가 버렸다고 개탄하였다. 이제 리얼리즘은 트리비알리즘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윤규섭은 이러한 “현실생활의 複寫 내지 追隨의 경향”을 ‘現實主義의 傾向’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면서 현실주의는 사실주의와 다른 말이라고 주장하였다.<sup>40)</sup>

그것은 생활과 문학의 관계, 현실과 문학의 관계를 正常的으로 파악한 寫實主義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첫째 문학이 그 獨自의 세계를 구성할 만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다시 말하면 藝術獨自의 형식을 상실한 문학적 경향이다.<sup>41)</sup>

리얼리즘의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듯이 현실주의나 卑俗主義는 오히려 리얼리즘이 범하기 쉬운 오류에 해당된다. 물론, 현실주의와 비속주의는 기본적으로 같은 차원에 놓을 수는 없다. 윤규섭은 현실주의는 명일의 사실주의로 나아 가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아끼지 않았다. 현실주의라는 말은 과거에 결코 자주 쓰인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따라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졌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일찌기 주요한은 「文藝通俗講話」(『동아일보』, 1926. 2. 1-25)에서 현실주의를 ‘철학이나 종교에 있어서 비관론 운명론 인생부정주의로 치닫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바 있다. 윤규섭이 현실주의를 과도한 순응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 시각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의 이러한 정의는 현실주의를 이상주의와의 대립어로 쓴 김팔봉과도 좋은 대조가 된다. 윤규섭은 현실주의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1940년대 초에 리얼리즘다운 리얼리즘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를 하였다.

#### 4. 해방정국의 리얼리즘론

해방이 되고 나자 리얼리즘론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제한되었거나 왜곡된 리얼리즘론을 펼쳤던 리얼리스트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문건 쪽이든 문맹 쪽이든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문학의 지향점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權煥은 「現情勢와 藝術運動」(『예술운동』, 1945. 12)에서 러시아 문학이론가 비노그라도프가 브르조아 리얼리즘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완성된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리얼리즘은 현실에 대한 성실한 관심과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계급의식이나 세계관을 지녀야 하는데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만이 이

40) 『문장』, 1940. 6. p. 204.

41) 위의 책, p. 205.

를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논리다.<sup>42)</sup> 해방된 바로 그해 12월 12일 아서원이라는 음식점에서 한설야,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과 같은 당시의 쟁쟁한 문인들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는데 큰 주제는 ‘조선문학의 지향’ 이었고 소재로는 ‘사상과 실천’, ‘세계관’, ‘리얼리즘 문제’, ‘작품과 독자’ 등이었다. 리얼리즘을 논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 중요한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金南天: 리얼리스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설야 형을 주관적 작가라고 봅니다. 韓雪野: 그러한 주관적 작가라고 해서 불명예는 아닐 터이니까요. 소련 작품을 보아도 주관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林和: 남천씨의 리얼리즘론은 독단적인 것 같소. 리얼리즘도 주관적입니다. 李源朝: 어느 것이나 세계관은 가져야 하지요. 金南天: 세계관과 작품을 기계적으로 결부하기도 힘듭니다. 金永健: 사실주의에도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天: 사실을 씬으로써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林和: 결론으로 말하면 해방후의 우리의 길은 리아리즘이 되어야 합니다.<sup>43)</sup>

이처럼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김남천이다. 김남천은 주관적 리얼리즘보다는 객관적 리얼리즘에 또 이론보다는 작품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김남천이, 낭만주의 또는 혁명적 낭만주의를 리얼리즘 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절대적 계기로 생각했던 임화에게 공격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金南天은 1946년 2월 8일과 9일에 있었던 전국문학자 대회에서 그 유명한 「새로운 創作方法에 關하여」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당시의 문인들에게 ‘진보적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창작방법으로 ‘革命的 로맨티시즘’과 ‘進步的 리알리즘’을 내 걸어 놓은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창작방법의 기본방향으로 리얼리즘과 아이디알리즘 두가지만을 생각하였다. 그는 “리알리즘은 객관적 현실을 주로 해서 주관을 그에 從屬시키는 것이요 아이데알리즘은 주관적 관념을 주로 해서 객관적 현실을 그에 從屬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또 “현실의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하는 태도가 리알리즘이오 현실에 先入見을 가지고 임하여 그것으로써 현실을 裁斷할려는 창작태도가 아이데알리즘”이라고 하였다.<sup>44)</sup> 이렇게 보면, 당파성이니 계급성이니 인민성이니 하는 것은 리얼리즘의 중심개념이 아니라 아이디알리즘의 기본태도가 된다. 그의 리얼리즘관은 이미 앞의 좌담회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창작주체보다는 객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리알리즘은 어떠한 철학, 정치관, 도덕관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나

42) 『예술운동』, 1945. 12, p. 11-13.

43) 『예술』, 3호, 1946. 1, PP. 6-7.

44) 『建設期的 朝鮮文學』, 白楊堂, 1946. 6, p. 166.

오게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不可知論과 맞붙은 리얼리즘은 卽物主義가 된다고 하였거니와, 진보적 리얼리즘은 '科學的 唯物論과 맞붙은 리얼리즘이요 더 명확하게는 進步的 民主主義 建立을 역사적 임무로 하는 시대의 唯物辨證法과 맞붙은 리얼리즘'이라고 설명했다.<sup>45)</sup> 진보적 리얼리즘이란 김남천이 끝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전제로 하면서 유물변증법의 논리를 토대로 하는 가운데 혁명적 낭만주의를 계기로 삼는 리얼리즘을 말한다. 진보적 리얼리즘은 부르조아 리얼리즘과 비판적 리얼리즘 다음 단계에 놓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6)</sup> 김남천의 진보적 리얼리즘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에 아낌없이 다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던 한효는 월북한 직후에 진보적 리얼리즘의 이름만 바꾸어 '고상한 리얼리즘'을 제기하게 되었다. 진보적 리얼리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전망과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고상한 리얼리즘'은 '고상한' 인물의 창조라는 북조선문예총의 창작방법론의 핵심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韓曉는 해방전후에 걸쳐 리얼리즘론을 가장 많이 발표한 논객이다. 그는 "진보적 리얼리즘은 실로 예술적 인식과 표현기술과의 완전한 통일 우에서 제창된 창작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進步的 리얼리즘에의 길」(『新文學』, 1946. 4)에서 1930년대의 리얼리즘론은 창작방법과 세계관을 동일시한 오류를 내 보이고 있거나 유물변증법을 강요하여 오히려 비마르크스적, 관념적인 경향으로 빠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이런 오류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는 하였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민적 현실'이 가장 '진보적인' 현실이라는 잘 이해되지 않는 등식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현실을 그려낸 것이 바로 진보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였다. 한효는 진보적 리얼리즘을 최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리얼리즘론을 비판하게 된다.

進步的 리얼리즘은 프로레타리아 리얼리즘 唯物辨證法的 創作方法이든 리얼리즘論을 거쳐서 도달한 우리문학의 最高의 창작방법이다. 이때까지의 창작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외국에서 특히 蘇聯에서 제창된 것을 그대로 移植해 노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식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나 소련의 사회주의적 현실을 그리기 위하여 제창된 社會主義 리얼리즘의 슬로간을 쫓혀 無批判的으로 바로 자본주의적 현실인 특히 帝國主義 壓政下의 朝鮮에다 기계적으로 이식하려고 한 性急에 대해서는 충분한 自省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리얼리스트에게 잊어서 항상 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의 現實이다.<sup>47)</sup>

45) 같은 책, p. 167.

46)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일지사, 1991), p. 120.

47) 『新文學』, 1946. 4, p. 138.

1930년대 후기에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金科玉條로 알았던 리얼리즘론자들에 비한다면 한효의 ‘우리 현실론’은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월북한 이후 진보적 리얼리즘에서도 떠나 버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비판론도 청산해 버리게 된다. 그의 ‘고상한 리얼리즘’론은 그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게로 복귀한 신호가 된다. 한효가 남한에 있었을 때 보여 주었던 ‘우리 현실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무조건적인 도입이나 기계적인 적용을 부정했던 백철, 안함광, 김두용 등과 비슷한 인식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朴贊謨도 김남천 류의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감응된 흔적을 드러 내고 있다. 그는 ‘리얼리즘의 확립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人民의 生活과 文學의 課題」(『문학평론』, 1947.4)에서 ‘조선문학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계몽하고 교육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5가지를 주장하였는데 이중 마지막 것은 ‘조선문학은 진보적 리얼리즘을 요구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박찬모는 진보적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혁명적 낭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낭만주의의 개념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얼리즘의 절대적 요소로 본 것으로는 朴勝極의 「농민들의 新課業」(『협동』, 1947. 1), 한효의 「朝鮮의 浪漫主義論」(『신세대』, 1946. 8) 등이 있다.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리얼리즘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실천적 능동적 리얼리즘이 될 수 있게 보증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박승극은 이러한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창작방법의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진보적 리얼리즘 대신 ‘인민적 리얼리즘’을 제기하였다. 농민문학을 염두에 두는 한 혁명적 로맨티시즘과 인민적 리얼리즘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8)</sup> 이처럼 혁명적 낭만주의는 원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그 후 진보적 리얼리즘과 어울리기도 하고 박승극에 의해서는 인민적 리얼리즘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박승극은 인민적 리얼리즘의 뜻은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그 어느 것과 어울리든 간에 그를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으로 洪曉民을 들 수 있다. 홍효민은 순수문학이나 계급문학 그 어느 것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朝鮮의인 리얼리즘”을 제창하였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사대주의자와 매국노를 다 몰아 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적인 리얼리즘은 우선 조선문제를 가장 조선적인 정의와 조선적인 모랄에서 구한다는 것”<sup>49)</sup>이다. 그는 입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귀족적, 폭군적으로 노는 작가들을 비난하면서도 조선적 리얼리즘은 오히려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8) 『협동』, 1947. 1, p. 42.

49) 洪曉民, 문학의 歷史的 實踐, 『白民』, 1948. 7, p. 13.



林肯載는 「문학과 현실」(『백민』, 1948. 7)에서 ‘現實主義’라는 말을 ‘공리주의’ 또는 ‘대세 적응주의’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백철의 ‘현실주의 문학론’을 공격하였다. 말하자면, 임궁재는 적극적인 리얼리즘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현실주의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940년대 말에 리얼리즘의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낸 이로 홍효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1930년대에도 분명한 목소리로 리얼리즘론을 펼쳤고 이어 해방직후에도 계속 리얼리즘론을 써내었다. 그는 1949년 9월에 「民族的 寫實主義의 樹立」, 「創作方法과 寫實主義」 등의 글을 발표했다. 후자의 글은 ‘고골리적 수법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사실주의의 모범작가로 푸쉬킨과 함께 고골리를 꼽은 것이었다. 홍효민은 사실주의의 핵심적인 정신으로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는 정신’을 들면서 이를 잘 반영한 작품으로 고골리의 「검찰관」, 「죽은 혼」을 들었다.<sup>50)</sup> 「민족적 사실주의의 수립」은 고리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포함한 러시아의 여러 종류의 사실주의는 슬라브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슬라브주의가 완전히 수립된 후에 세계주의, 국제주의로 나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적 내지 민족주의적 사실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1)</sup> 이 글에서 사실주의의 기본정신을 ‘비평정신’에서 찾고 있는 홍효민은 러시아에서는 여러 유형의 리얼리즘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푸쉬킨은 예술적 사실주의에, 콘차로프는 객관적 사실주의에, 트르게네프는 심리적 사실주의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종교적 사실주의에, 톨스토이는 민주적 사실주의에, 체홉은 소시민적 사실주의에 노력했던 것으로 정리하였다.<sup>52)</sup> 이 비슷한 시기에 金鳴水는 「生活의 創造者로서의 文學」(『신천지』, 1949.6)에서 ‘인민적 리얼리즘’을, 韓植은 「朝鮮文學의 發展을 위하여」(『문학예술』, 1948. 4)에서 ‘고상한 리얼리즘’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해방정국 아래서는 진보적 리얼리즘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분명히 차별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세계관과 창작방법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을 고비로 하여 진보적 리얼리즘은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으며 ‘인민적 리얼리즘’, ‘조선적 리얼리즘’, ‘민족적 사실주의’, ‘현실주의’ 등의 새로운 리얼리즘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50년대에 들어 서면서 한국의 논객들과 작가들은 아무 한정어도 앞에 붙여 있지 않은 리얼리즘의 성취에 급급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50) 『新天地』, 1949. 9, p. 251.

51) 『문예』, 1949. 9, p. 185.

52) 같은 책, p. 183.

#### 4. 결 론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리얼리즘의 유형이나 종류에 대한 논의의 역사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현대문학은 식민통치와 근대화의 명제 아래 발생, 성장해 왔던 만큼 자연 리얼리즘에 많은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리얼리즘론은 리얼리즘을 자연주의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金八峰의 '변증적 사실주의'(1929)가 제창되자 당시의 문인들은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洪曉民은 대표적인 김팔봉 지지자다. 安漢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1930)을 제기하였고 韓雪野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과 변증법적 사실주의를 등식화 하였다(1931). 白鐵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당시의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대신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이 적합한 용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했던 논자로는 朴英熙, 金南天, 安畝光 등이 있다. 김남천의 반응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權煥과 安漢은 소시알리스트 리얼리즘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논자다(1933). 朴英熙와 尹崑崗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또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대안으로 심리적 사실주의를 내세웠고(1934), 韓曉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다(1935). 金斗鎔은 혁명적 리얼리즘을(1935), 김남천은 '진진한 사실주의'를 제기하였다(1936). 해방 직후의 리얼리즘론 중에서는 김남천의 '진보적 리얼리즘'(1946), 한효의 혁명적 낭만주의 내포설(1946)과 '고상한 리얼리즘', 홍효민의 '조선적 리얼리즘(1948)', '민족주의적 사실주의'(1949), 韓植의 '고상한 리얼리즘'(1948), 金鳴水의 '인민적 레아리즘'(1949) 등이 제기되었다. '진보적 리얼리즘' 이후에 제기된 리얼리즘 유형들은 주로 이데올로기 면에서 진보적 리얼리즘의 대안의 형식을 취한 것들이다. 1950년대에 들어 서면서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리얼리즘, 소박한 리얼리즘, 19세기 류의 리얼리즘을 리얼리즘의 중심내용으로 인정하는 선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 참 고 문 헌

- 權煥, 寫實主義의 創作 메토-데의 緒論(『중앙』, 1933. 12)  
 \_\_\_\_\_, 現實과 世界觀 및 創作方法과의 關係(『조선일보』, 1934. 6. 24-6. 29)  
 \_\_\_\_\_, 現情勢와 藝術運動(『예술운동』, 1945. 12)  
 金南天, 創作方法에 잇서서 轉換의 問題(『형상』, 1934. 3)  
 \_\_\_\_\_, 健全한 寫實主義의 길(『조선문단』, 1936. 1)

- \_\_\_\_\_, 새로운 創作方法에 關하여(『중앙신문』, 1946. 2. 13-2. 16)
- 金斗鎔, 創作方法의 問題(『동아일보』, 1935. 8. 24-9. 3)
- \_\_\_\_\_, 창작방법의 문제에 대하여 再論함(『동아일보』, 1935. 11. 6-29)
- 金鳴水, 生活의 創造者로서의 文學(『신천지』, 1949. 6)
- 金龍濟, 리얼리즘의 옹호(『동아일보』, 1937. 10. 14-16)
- \_\_\_\_\_, 리얼리즘문학 發展論(『동아일보』, 1937. 9. 14-18)
-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일지사, 1991)
- 金友哲, 再討議에 오른 창작방법 문제(『조선일보』, 1933. 12. 15-16)
- 金八峰, 十年間 朝鮮文藝 變遷過程(『조선일보』, 1929. 1. 1-2. 2)
- \_\_\_\_\_, 辨證的 寫實主義(『동아일보』, 1929. 2. 25-3. 7)
- \_\_\_\_\_, 寫實主義 問題(『조선일보』, 1929. 6. 13-25)
- 朴勝極, 리알리즘 小考(『조선중앙일보』, 1935. 3. 11-30)
- \_\_\_\_\_, 農民文學의 新課業(『협동』, 1947. 1)
- 朴英熙, 創作方法과 作家의 視野(『중앙』, 1934. 4)
- 朴贊謨, 人民의 生活과 文學의 課題(『문학평론』, 1947. 4)
- 白 鐵, 文藝時評(『조선중앙일보』, 1933. 3. 2-8)
- \_\_\_\_\_, 文藝時評(『조선일보』, 1933. 9. 16-19)
- \_\_\_\_\_, 文藝時評(『조선일보』, 1936. 2. 13-22)
- 宋 江, 浪漫과 寫實(『동아일보』, 1934. 11. 30-12. 9)
- 安 漠, 푸로藝術의 形式問題(『조선지광』, 1930. 3-6)
- \_\_\_\_\_, 創作方法 問題의 再討議를 위하여(『동아일보』, 1933. 11. 29-12. 7)
- 安舍光, 時事文學의 옹호와 打合 나이브 리아리즘(『형상』, 1934. 3)
- \_\_\_\_\_, 창작방법 문제의 토의에 기하여(『문학창조』, 1934. 6)
- \_\_\_\_\_, 創作方法 問題 新理論의 吟味(『조선중앙일보』, 1934. 6. 17-30)
- \_\_\_\_\_, 現代文學 精神의 摸索(『조선일보』, 1937. 11. 11-14)
- 柳白鷺, 소년문학과 리아리즘(『중외일보』, 1930. 9. 18-26)
- \_\_\_\_\_, 프로문학의 大衆化(『중외일보』, 1930. 9. 4-10)
- 尹鼓鍾, 寫實主義의 現代의 意義(『조선문학』, 1937. 2)
- 尹崑崗, 소시알리스틱 리알리즘론(『신동아』, 1934. 10)
- 尹圭涉, 現實主義의 傾向(『문장』, 1940. 6)
- 李東珪, 창작방법의 새 슬로건에 대하여(『조선중앙일보』, 1934. 6. 10-13)
- 李秉珏, 리알리즘의 再吟味(『조선문단』, 1935. 4)
- \_\_\_\_\_, 朝鮮的 現實의 論考(『조선중앙일보』, 1935. 8. 17-22)

- 林肯載, 문학과 현실(『백민』, 1948. 7)
- 林 和, 浪漫的 精神의 現實的 構造(『조선일보』, 1934. 4. 25)
- \_\_\_\_\_, 사실주의의 再認識(『동아일보』, 1937. 10. 8-14)
- 張師善, 한국리얼리즘 문학론(새문사, 1988)
- 蔡萬植, 僞裝의 科學評論(『조선일보』, 1937. 12. 1-7)
- 韓雪野, 寫實主義 批判(『동아일보』, 1931. 5. 17-7. 25)
- \_\_\_\_\_, 辨證法的 寫實主義의 길로(『조선중앙일보』, 1932. 1. 18-19)
- \_\_\_\_\_, 브르 리얼리즘의 認識上의 缺陷(『조선일보』, 1933. 11. 15)
- 韓 植, 푸쉬킨의 레아리즘의 특징과 로만티즘(『조선문학』, 1937. 4)
- 韓 曉, 新創作方法의 再認識을 위하여(『조선중앙일보』, 1935. 7. 23-27)
- \_\_\_\_\_, 창작방법의 논의(『동아일보』, 1935. 9. 27-10. 5)
- \_\_\_\_\_, 現實認識의 態度와 모랄(『비판』, 1938. 9)
- \_\_\_\_\_, 進步的 레아리즘의 길(『신문학』, 1946. 4)
- \_\_\_\_\_, 창작방법 確立(『독립신보』, 1946. 5. 14)
- 洪曉民, 辨證的 寫實主義와 辨證的 表象主義의 差異(『신민』, 1930. 7)
- \_\_\_\_\_, 文學의 歷史的 實踐(『백민』, 1948. 7)
- \_\_\_\_\_, 창작방법과 사실주의(『신천지』, 1949. 9)
- \_\_\_\_\_, 民族의 寫實主義의 樹立(『문예』, 1949. 9)

## 《Summary》

**History of discussion of realism in Korea****Nam-Hyon Cho**

History of discussion of realism in Korea can be limited the field of the types of realism. Our modern literature had developed under the proposition of colonization and modernization, so our writers and theorists expected the power of the realism. Serious discussion of realism began in the attempt to separate the realism from the naturalism. Pal-Bong Kim presents 'dialectic realism'(1929), Mag An presents 'proletariat realism' (1930). Sul-Ya Han identified 'dialectic realism' with 'proletariat realism'(1931). Hwan Kwon and Mag An appeared as the positive supporter of the socialist realism. Theorists such as Young-Hee Park, Nam-Chon Kim, Ham-Kwang An, Doo-Yong Kim denied the insistence that the socialist realism can be applied all over the world. Young-Hee Park, Chul Paik and Kon-Kang Yun presented the psychological realism as an alternative of socialist realism(1934). And Hyo Han insisted that socialist realism should contain the revolutionary romanticism. Afterwards he repeats the insistence. After the 1945 Liberation, Nam-Chon Kim raised the 'evolutionary realism', Hyo-Min Hong raised 'Korean realism' and 'national realism', Sik han 'noble realism'. In the 1950's the discussion of the realism went back to the objective or naive realism.